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서울시내 주부의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The Empirical Test of System Mode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the Managerial Behaviors of Wives Living in Seoul—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 교수 이 연 숙

상명여자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두 경 자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Asst. Prof.: Yon 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 Myung Women's Univ.

Instructor.: Kyung Ja Too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V. 연구결과 및 해석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system model for family resources management developed by Deacon and Firebaugh.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a stratified sample of 600 housewives living in Seoul. The questionnaires specially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contained of 118 items. The coefficient alpha reliability estimate for this instrument was conducted using Cronbach' procedu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 mean,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elements of satisfaction with the management was correlated with demands(the household size, the age of

the last child, employment status of respondents), resources(marital satisfaction, health of respondents), and throughput(standard setting, reality in planning, the existance of facilitating conditions). A system mode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received considerable empirical support. This presumed that the components of demands lead to the lower satisfaction with management.

The throughput components were also important in explaining satisfaction with management some of research and methodology issues for the advanced study were suggested.

I. 서론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체계적 접근법을 제안한 학자는 디컨과 화이어버(Deacon & Firebaugh, 1966)이었으나, 1970년 이후에야 비로소 그로스, 크랜달, 놀(Gross, Crandall & Knoll, 1980) 등의 주장에 힘입어 체계적 접근법이 가정관리 연구에 이용되게 되었다(김외숙 외, 1990). 그동안 디컨과 화이어버(Deacon & Firebaugh)의 체계이론을 기초로하여 맬로크와 디컨(Maloch & Deacon, 1970)이 가정관리 체계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뒤를 이어 뉴튼(Newton, 1979), 구다노(Gaudagno, 1981), 헤크(Heck, 1983) 등이 이들 모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여 전체적 가족자원관리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조사도구의 개발이나 체계이론과 완전히 부합되는 검증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무엇이 가족의 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은 어떻게 그들의 관리목표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산출에 작동하는가? 산출의 질을 다르게 하는 효과적, 비효과적인 관리행동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상호관련시켜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이 필요한 한 검증에 대한 시도는 계속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남게 될 것이다. 요컨대 체계이론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요구와 자원, 산출 사이에서 관리행동이 어떻게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게 되며 인식의 개념과 가족자원관리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관리상황의 동적인 면을 이해하고 관리행동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자원관리의 체계이론과 모델이 소개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이러한 모델이 한국상황에서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위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이러한 체계모델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성하고 한국 가정에 걸맞는 관리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디컨과 화이어버(Deacon & Firebaugh, 1988)이론에 기초한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체계모형의 적용성을 시험해 봄으로써 관리이론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하위체계의 개념 및 구조

가족체계는 관리적 하위체계와 인적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적 하위체계는 개인이나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기위하여 유용한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다루는 하위체계(Guagagno, 1981)이다. 이 체계는 보존보다는 효과적인 자원사용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자원사용자는 개인의 만족이나 생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며(Sharpe & Winter, 1982, p.6)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Malik & Probst, 1982, pp.153-174).

인적하위체계의 기능들은 관리적 하위체계와 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적하위체계는 관리적 하위체계의 가치나 목표지향, 관리과정을 돕거나 발전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관리적 하위체계의 관리능력은 인식적인 인적 하위체계의 도움없이는 발전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적 하위체계는 감정, 또는 신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적 하위체계의 관리과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한다. 반면에 관리적 하위체계를 통해 얻은 산출은 인적 하위체계에 경험을 제공하여 인적 하위체계의 발달을 돕는다. 가정관리의 촛점이 되는 가정관리 하위체계는 투입, 변환과정, 산출, 피이드백으로 구성된 구조를 갖는다.

(1) 투입(Input)

투입은 산출이나 성과를 달성하려고 여러 형태로 체계에 들어가서 변환과정에 영향을 주는 물질, 에너지 정보이다. 즉, 투입은 자원이 할당되는 이유, 무슨 자원을 할당하느냐의 문제, 자원을 할당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Deacon & Firebaugh, 1988, p.9) 반응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현상에 대한 반응은 투입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가정관리에 투입될 수 있는 요소는 요구와 자원이다. 요구요소는 가족이나 관리적 하위체계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정 안과 밖에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목표나 사건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된다.

목표를 통한 요구는 가족의 인적 하위체계에서 발생하여 그 체계를 경유한 후 관리적 하위체계에 직접 투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손과 비어드(Olson & Beard, 1984)는 목표를 가족체계내의 관리적 하위체계와 인적 하위체계의 중간 활동으로 보았다.

사건을 통한 요구는 예상되지 못한 때에 일어나서 행위를 요하는 비교적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사건은 외적사건과 내적사건이 있는데 외적사건은 보통 인적하위체계를 거치지않고 갑작스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관리적 하위체계에서 직접 반응하며 내적사건은 가족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가족의 가치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자원요소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목표와 사건이 만족스럽게 달성되도록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의 방법을 암시한다(Malock & Deacon, 1966, pp.31-35). 자원요소는 가족체계의 내적인 생

산활동으로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효해진다. 자원요소는 능력, 기술, 지식, 정직, 성실, 애타주의와 같은 인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인적 자원과 토지, 집, 가구, 기구, 소득, 자산 등의 물질재 등을 나타내는 물적 자원이 있다(Beutler & Owen, 1980, p.20).

(2) 변환과정(throughput)

변환과정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잘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변환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는 투입을 고려한 산출과 비교해 봄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디컨과 화이어버(Deacon & Firebaugh, 1988)는 변환과정을 다루지 않는 관리 연구는 「black box」와 같아서 극히 제한적인 면밖에는 관찰할 수 없다고 하여 변환 과정이 산출의 질에 미치는 큰 영향을 강조하였다. 변환과정은 두개의 요소인 계획과 수행으로 구성된다.

계획은 미래의 표준과 행동순서에 관한 일련의 결정이다. 표준은 자원과 요구를 조화시키는 양 혹은 질을 나타내는 것이며, 표준설정 은 목표와 사건이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달성되도록 요구와 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Olson & Beard, 1984). 행동순서를 결정하는 일은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부분들을 순서화 하거나 혹은 일과 일사이를 서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은 네가지 속성, 즉 융통성, 명료성, 실현가능성, 복잡성 등의 속성을 나타낸다(Maloch & Deacon, 1970).

융통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질, 양, 순서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명료성은 구체적인 표준과 행동순서가 개발된 정도를 말한다. 실현가능성은 표준과 행동순서의 달성가능성을 말하며, 복잡성은 사람과 직업간의 상호관련성 정도를 의미한다.

수행은 계획안과 절차(표준과 행동순서)를 실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천은 계획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통제는 행위의 결과가 계획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검사하여 필요하다면 표준과 행동순서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의 역할은 계획작성시의 기대된 성과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주며 통제활동에는 점검과 조정이 있다. 수행과 관련된 요소로서 촉진조건이 있는데 이

는 학자에 따라서는 수행과정에 포함시키기도 하며(Gross, Crandall & Knoll, 1980), 분리시키기도 한다(Deacon & Firebaugh, 1988). 이 촉진조건은 행위의 진행 혹은 흐름을 돕는 상황적 특징이다(Deacon & Firebaugh, 1988). 일의 진행을 돕는 촉진조건은 관리자가 개인적 혹은 환경적 요인(물리적, 가족적 촉진조건)의 유효성을 깨닫고 그것을 자원화하기만 하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자원에 고려되는 요인은 아니다(Guadagno, 1981, pp.6-7).

3. 산출(Output)

산출은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변환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기는 물질, 에너지, 정보이다. 가정관리 하위체계의 산출유형은 요구에 대한 반응과 자원의 변화로 이분된다. 요구에 대한 반응은 가치와 만족도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관리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로 측정된다. 목표와 사건에 대한 요구반응에서 얻어지는 산출의 일부는 인적체계에 피드백되며 외적 환경에 대한 산출은 사회의 틀을 형성하는데 공헌한다. 요구에 대한 반응 혹은 목표성취를 재는 척도를 뉴우턴(Newton, 1984, p.12)은 만족도라 하였다.

자원의 변화는 인적 혹은 물리적 자원의 총 구성과 관계되는 것이며 그 변화는 관리적 행위에서 생긴다. 인적자원은 보통 관리행동을 통해 변화하며 물질적 자원은 역시 관리행동을 통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동된다.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은 처음 사용한 자원의 양과 결과로 나타났을 때의 양과의 차이를 보고 알 수 있다(Newton, 1984, p.12)

피이드백(feedback)은 계속되는 산출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체계로 재투입되는 산출에 관한 정보이다. 관리적 산출에서 생긴 피이드백은 관리적 체계뿐 아니라 인적 하위체계에도 영향(추후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을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한다. 따라서 정적 피이드백은 변화를 지향하고 수용해서 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적 피이드백은 변화를 수정하여 체계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2. 가정관리체계내의 요소간의 관계

(1) 투입요소가 변환과정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부의 취업, 건강, 결혼만족도,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가사노동총시간수, 소득, 총 자산 및 물질재(내구재 소유상태),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 주부의 연령 등과 같은 투입요소들이 관리하위체계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부의 취업상태와 변환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크(Heck, 1983)는 주부의 취업은 가정관리를 위해 쓸 유용한 시간과 에너지를 감소 시킴으로써 관리행동을 복잡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정수(1984)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비취업주부의 가사 노동시간보다 적다고 하였다. 이승미(1989)는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시간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도 낮다고 하였다.

주부의 건강도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맬로크와 디킨(Maloch & Deacon, 1970)은 건강한 주부가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건강하지 못한 주부는 표준의 복잡성이 높고 조정을 자주한다고 하였다. 헤크(Heck, 1983)는 결혼만족도가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관리행동과 과정이 효율적이 되어 관리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인다(Heck, 1983)고 보고하였다.

교육은 관리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로스(Gross, 1948), 워터스(Watters, 1967), 힐(Hill, 1963), 바크레이(Barclay, 1970), 하글리(Hugley, 1976) 등의 연구에서 관리행동의 효율성과 교육수준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연숙(198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융통성을 고려한 정도가 컸다고 하였고, 또다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에 관한 학습이 부분적으로 관리행동이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이연숙, 1990). 가정관리에 대한 학습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선과 이정우(1985)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 데, 즉 가정관리 실습후가 실습전보다 관리행동이 더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의 총소득도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 연구는 밝히고 있다. 취업주부의 소득증가가 주부의 가사노동총시간을 감소시킨다(Gronau, 1977)는 연구와 가정의 총수입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이정수, 1984)는 연구가 있다. 또한 디켄스(Dickens, 1943), 그로스과 제머(Gross & Zwemer, 1944) 등은 성공적인 관리는 높은 소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하글리(Huguley, 1976)는 충분한 소득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였고, 웨터스(Watters, 1967)는 고소득집단의 관리자가 창의성, 자원활용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이 소유한 총자산도 주부의 관리행동과 관계가 있었는데 살버그(Sahlberg, 1977)는 총자산이 높은 가족은 더 소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위간드(Wiegand, 1953)는 막내자녀가 4세이하였을 때 가족돌보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컸다고 하였고, 워커(Walker, 1969)와 새닉(Sanik, 1977)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가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부는 행동순서의 명료성과 표준의 실현가능성이 감소하였다고 말로크와 디컨(Maloch & Deacon, 1970)은 보고 하였고, 살버그(Sahlberg, 1977)는 나이가 많은 연령층일수록 덜 소비적인 계획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수 및 가족수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하글리(Huguley, 1976)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관리행동의 효율성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무마우와 니콜스(Mumau & Nichols, 1972)는 자녀수와 자녀연령이 주부의 관리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라 관리행동에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하글리(Huguley, 1976)는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의 관리행동의 효율성은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뉴우턴(Newton, 1979)은 가장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리행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연숙(1983)은 연령이 낮은 주부일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며, 계획의 융통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2) 변환과정이 산출에 미치는 영향

그로스과 제머(Gross & Zwemer, 1944)에 의하면 만족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관리행동을 할 때 관리행동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힐(Hill, 1963)은 관리를 할 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관리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에터와 디컨(Ater & Deacon, 1972)은 가정관리를 할 때 남편의 동의를 얻는 주부가 관리만족도가 컸다고 하였으며 비어드(Beard, 1975)는 관리자의 금전관리행동이 안정지향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연숙(1988)은 가족활동의 계획, 목표설정, 표준의 변경과 같은 시간관리전략들이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조미환(1990)은 안정지향적 관리행동을 하는 주부일수록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다. 뉴우턴(Newton, 1984)은 미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생활에 더 큰 만족을 하며 관리행동은 관리만족도와 매우 높은 정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관리행동을 훌륭히 수행하는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컸다는 것이다.

(3) 투입요소가 산출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는 목표지향성 지수, 주부의 취업상태, 건강, 결혼만족도,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가사노동총시간, 소득, 가족의 총자산 및 물질재,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등은 가족수, 주부의 연령, 주택의 형태 등이었다.

목표지향성지수와 관리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헤크(Heck, 1983)는 목표지향성 지수와 관리만족도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목표지향성지수가 클수록 산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관리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헤크(Heck, 1983)는 또한 주부의 취업상태도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는데 취업한 주부가 소득을 얻기위한 노력을 많이하므로 소득에 만족하려는 기대가 커서 실제의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량한 건강은 인적자원의 질을 낮게하기 때문에 산출에 대한 관리만족도를 낮게 하며 결혼만

족도가 높을수록 관리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커져서 만족도가 커진다고 헤크(Heck, 1983)는 보고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헤크(Heck, 1983)는 교육수준과 관리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다. 김은주(1979)와 이기숙(1982)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으나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와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Oakley, 1974; 서창원, 1983)도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총시간과 관리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헤크(Heck, 1983)는 주부의 가사노동총시간과 관리만족도와는 부적적인 관계가 있고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주부의 관리만족도와는 정적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가사노동 총시간이 많은 주부는 관리만족도가 낮았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질수록 주부의 관리만족도는 컸다고 하였다.

소득도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반보텔과 그로스(Van Bortel & Gross, 1951)는 소득이 낮은 주부들이 소득이 높은 주부보다 관리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고 헤크(Heck, 1983)는 물질 자원의 수준이 높은 주부가 관리만족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막내자녀연령 혹은 첫자녀연령이나 자녀수도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헤크(Heck, 1983)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확대가족은 자원은 적고 요구와 스트레스는 증가하므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에터와 디건(Alter & Deacon, 1972)은 첫아이의 연령과 주부의 만족도와는 부적관계가 있어서 첫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주부의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주부의 연령과 관리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헤크(Heck, 1983)는 주부의 연령과 관리만족도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어서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리만족도가 커진다고 하였으나 김은주(1979), 김외숙(1981)은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이 비효율적이며 불만족하는 주부가 많았다고 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형태가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단독주택 주거주부가 아파트 주거주부보다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김미숙, 1980), 두 변수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김외숙, 1981, 서창원, 1983)도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관리체계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형성하고 이 모형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될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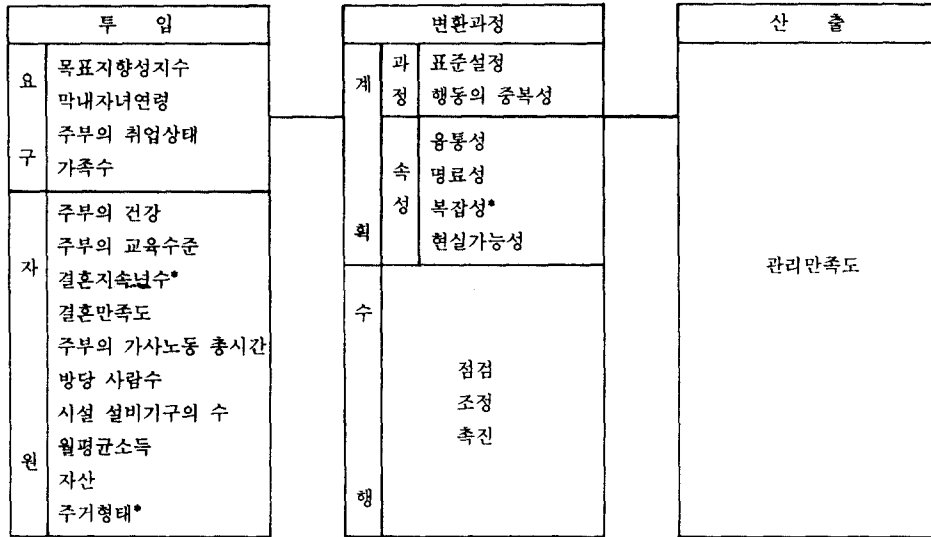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연령과 직업별로 분류하여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역안배를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 강서, 강동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1990년 8월 25일-30일까지 2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1990년 9월 10일-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가 학생(4명)과 함께 주부대학(농협주최 서울북부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안면이 넓은 주부 조력자(2명)들의 도움을 받아 호별방문이나 전화인터뷰를 통한 개별조사와 단체조사를 병행하였다.

질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600부 모두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 40부를 제외하고 56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단계적 중회귀 분석에서는 가정부와 파출부를 고용하는 주부 60명을 제외시킨 500부만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15.7년, 평균막내자녀연령은 11세, 평균자녀수는 2.2명으로 조사대상자의 75%가 30대와 40대 주부였다. 응답자의 95%가 유배우자였고 그 중 89.7%가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0.2%가 건강상태를 양

(그림 1)



* 다중공선성현상으로 경로분석에서는 제외되었음.

호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월평균소득은 평균 9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었고 자산은 9천만원 이상-1억 미만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방당 사람수는 0.7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방당사람수 2.0명(경제기획원: 1985)보다 적어서 조사대상자의 주택조건이 양호한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족수는 4.3명으로서 우리나라 평균가족수 4.1명(경제기획원: 1989)과 비슷하였고 교육수준은 남편이 평균 14.6년, 부인이 12.3년으로 주부들의 학력이 고학력 추세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가사노동총시간은 5.52시간으로 평일(5.5시간), 주말(5.6시간)이 비슷하였으며 이는 강신주(1968)의 1일평균 8.45시간, 윤복자(1975)의 8.1시간, 안영희(1977)의 9.85시간, 임정빈(1981)의 1일 평균 8.95시간, 이정수(1984)의 1일 평균 8.1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시설 및 설비기구의 보유율은 17가지 제시한 품목중 평균 11가지를 보유한 상태로 나타나 보유율이 높은 편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등이 90% 이상이었고 자가용 56.6%, 재봉틀 48.4%, 식기건조기 37.4%, 빨래 건조기(빨랫대가 아님) 25.8%이었고 그 중 세

척기는 4.7%에 불과하여 손으로 직접 설거지하는 주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취업 여부는 취업주부가 20%, 비취업주부가 80%로서 대부분이 전업가정주부임이 밝혀졌다.

<표 1>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목표지향성 지수를 측정하는 11개 문항, 표준설정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융통성을 측정하는 10개 문항, 명료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 실현가능성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복잡성을 측정하는 7개 문항, 행동의 중복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점검을 측정하는 9개 문항, 촉진을 측정하는 10개 문항, 조사대상자의 배경을 측정하기 위한 14개 문항 등 총 10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의 타당도는 가정관리전문가(4인의 교수)의 검증을 받았고,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하여 내적 일관성 정도를 검토하였다. 각 척도별 신뢰도 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주부연령	20대	5.7	결혼지속년수	1~5년	10.1
	30대	35.7		6~10년	19.8
	40대	38.6		11~15년	21.9
	50대	20		16~20년	19.0
				21년이상	29.2
	계	100(500)		계	100(497)
자녀수	1명	15.5	월평균소득	49만원미만	1.5
	2명	54.2		50~79만원	18.7
	3명	23		80~99만원	20.4
	4명	7.3		100~149만원	29.6
				150만원이상	29.8
	계	100(497)		계	100(500)
막내자녀연령	6세이하	20.0	자산	500만원미만	15.2
	7~13세	40.0		500~1억미만	21.1
	14세~16세	11.5		1억~2억미만	25.1
	17세~19세	12		2억~4억미만	23.2
	20세이상	16.3		4억~6억미만	7.1
				6억~10억미만	4.7
	계	100(500)		10억이상	3.6
				계	100(497)
주부의 건강	나쁨	9.8	사용하는 방수	1개	4.8
	보통	57		2~3개	72.2
	좋음	33.2		4~5개	19.6
				6개이상	3.4
	계	100(500)		계	100(497)
주부의 1일 가사노동총시간	2~3시간	17.5	결혼만족도	불만족	7.6
	4~5시간	39.3		보통	43
	6시간	15.2		만족	46.7
	7~8시간	15.2		매우만족	2.7
	9시간이상	12.8			
	계	100(500)		계	100(489)

※ 항목별 무응답이 제외되어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수는 융통성척도(.545)를 제외하고 모든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65를 넘어 Gronlund(이연숙, 1990, 재인용)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작성하여 "항상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였고,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항상 그렇지 않다"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진술된 문항과 역으로 점수를 주어 환산하였다. 복잡성 정도는 주부가 가사작업을 수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의 총수와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의 총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행동의 중복성 정도는 두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한 총 작업의 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수 측정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

(표 2)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N=500)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가족수	1.000																							
2. 주부의 건강	.941	1.000																						
3. 막내자녀연령	.250***	-.022	1.000																					
4. 주부의 취업상태	-.118**	0.028	.651	1.000																				
5. 결혼만족도	.001	.055*	.031	.015	1.000																			
6. 월생관소득	.183***	.078	.145***	-.052	.157***	1.000																		
7. 자산	.287***	.043	.277***	.063	.142***	.538***	1.000																	
8. 목표지향성지수	.025	-.054	-.080	-.025	.021	.042	-.024	1.000																
9. 표준실정	.067	.023	.045	-.198*	.103	.041	-.054	.104*	1.000															
10. 융통성	-.114**	.018	.046	-.131**	.029	-.045	.027	.062	.364***	1.000														
11. 명료성	-.047	-.056	-.072	-.060	-.008	-.024	-.042	.042	.352	.309	1.000													
12. 실현가능성	.064	1.004*	.066	-.133**	.080	.086	.043	.092	.325	.469	.288***	1.000												
13. 행동의 복잡성	.128**	-.067	.084	.123**	.035	.121**	.147***	.071	-.048	-.065	0.031**	-.044	1.000											
14. 중복성	.037	.029	-.065	.042	-.040	.177**	.104*	.032	-.059	-.019	-.020	-.028	.733***	1.000										
15. 점검	.011	-.033	.020	-.036	.040*	.074	.048	.056	.315***	.208***	.294***	.360	.041	.032	1.000									
16. 조정	.030	-.001	.124**	.065	.061	.376***	.032	.058	.151***	.183***	.242	.182***	.105*	.068	.493***	1.000								
17. 추진	-.091	.156**	.109*	.024	.174***	.376***	.461***	.017	-.035	.041	.182	.177*	.122**	.113*	.025	.118***	1.000							
18. 관리만족도	-.154***	.246***	.069*	.137**	.350***	.116	.062	.061	.250***	-.175***	.145***	.373***	-.029	-.109*	.196**	.079	.274***	1.000						
19. 삶비, 가꾸수	.115***	.076	.201***	.050	.151***	.475***	.574***	.015	-.076	.066	-.069	.024	.151	.063*	.065	.524***	.524***	.116**	1.000					
20. 방당사원수	-.340***	.033	.114	.062	.064	.173***	.344	-.148	.078	.064*	-.016	-.010	.055	.030	-.021	.065	.400***	.161**	.268***	1.000				
21. 가사노동시간	.129	.017	.048	.126	-.056	.069	.016	.065	.106*	.162***	.053	.101*	-.0023	.043	.058	.068	.051	.071	-.060	.018	1.000			
22. 결혼지속연수	.313	.001	.882***	-.039	.053	.158***	.326***	.132	.058	.068	.083	.112	.101*	-.044	.077	.107*	.123**	.114**	.183***	.182***	.074	1.000		
23. 주부의 교육수준	-.095	.038	.168***	.026	.122	.246***	.142	.166	-.017	-.042	.088*	.117*	.133**	.080	-.019	.248***	.248***	.002	.280***	.148***	-.051	-.228***	1.000	
평균	4.314	2.248	11.342	3.529	9.010(3)	10.099(3)	44.012	39.486	20.033	17.986	41.284	20.433	9.724	28.236	29.483	5.469	.280	10.701	.705	5.58	15.766	2.321	7.954	2.706
표준편차	1.081	.611	6.183	.395	.854	2.160	4.181	4.515	5.472	2.920	3.196	5.776	4.908	3.212	4.633	4.577	2.068	10.701	2.533	.288	2.214	7.954	2.706	

* p<.05 ** p<.01 *** p<.001

①번은 가변수에 대한 평균으로 점분기출지에 해당됨.
 ②, ③번은 소득액이나 자산액을 액수에 의거하여 명목화한 해당변호를 가르킴.
 (②) 90~99만원, (③) 9원만원. 1억미만의 범위를 나타내는 절분치도 포함임.

거나 알맞은 문항을 선택하도록 예문을 제시하였다. 주부의 취업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을 이분화하여 취업의 경우는 1점, 비취업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다. 건강상태는 "나쁨"을 1점, "보통"을 2점, "좋음"을 3점으로 환산하였고, 방당 사람수는 사용하고 있는 방의 총수를 가족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시설 및 설비기구

수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기구의 총수를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리하위체계의 요소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표 3〉 경로모형에 관련된 변수들의 회귀계수(N=500)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회귀계수(B)	b
관 리 만 족 도	실현가능성	.370**	.230
	결혼만족도	.298***	1.421
	주부의 건강	.202***	1.447
	축진	.157**	.337
	표준설정	.142**	.126
	가족수	-.132***	-.862
	막내자녀연령	.125**	.104
	주부의 취업상태	-.093	-.124
F	회귀상수	13.235	
		38.162	
R ²		.345	
표준설정	주부의 취업상태	-.108*	-1.549
	결혼만족도	.106*	.671
F	회귀상수	37.396	
		5.383	
R ²		.023	
실현가능성	주부의 취업상태	-.132***	-1.989
F	회귀상수	41.672	
		8.183	
R ²		.017	
축진	결혼만족도	.170***	.367
	주부의 건강	.149***	.497
	막내자녀연령	.131***	.054
	가족수	-.126***	-.246
F	회귀상수	3.497	
		10.474	
R ²		.083	
축진	실현가능성	.129***	.017
F	회귀상수	3.530	
		7.995	
R ²		.017	

* p<.05 ** p<.01 *** p<.001

포,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해당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투입, 변환과정, 산출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을 채택한 유의미한 범위를 5% 수준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경로분석(Path-analysis)을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에 이용된 프로그램은 SPSS/PC+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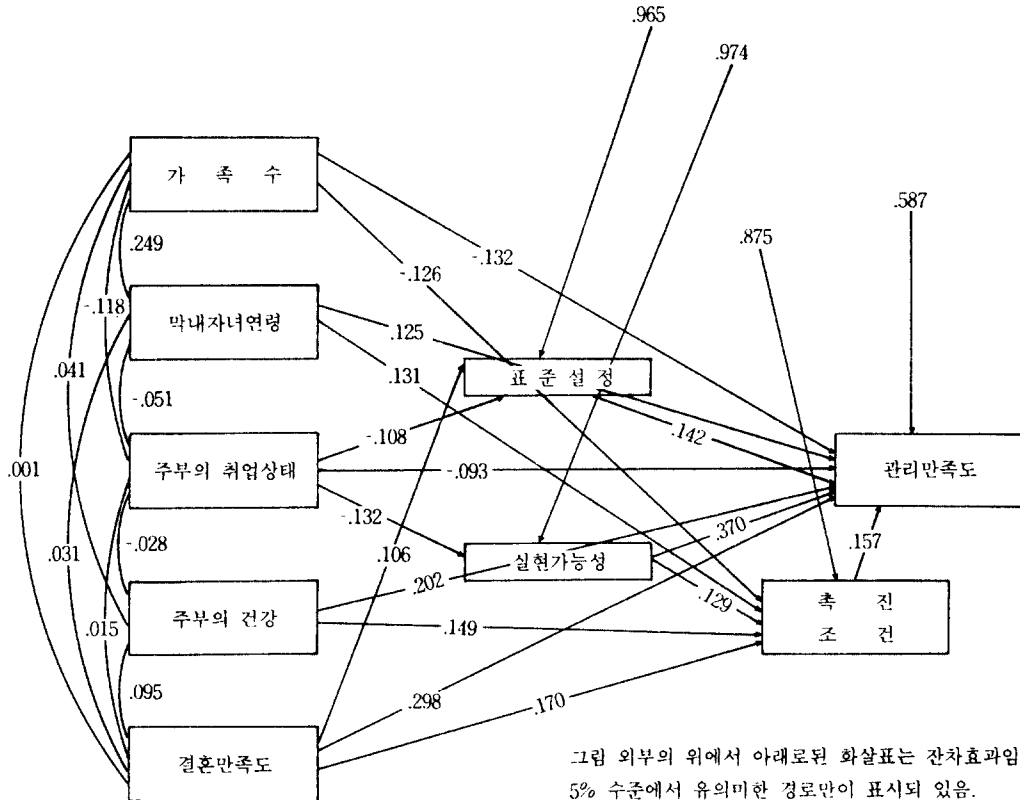
V. 연구결과 및 해석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요소인 요구와 자원요소를 외생변수로, 변환과정요

소인 계획과 수행활동을 내생변수로,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포함된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2〉참고). 이 결과 요구요소중 막내자녀연령과 자원요소인 결혼지속연수간에 ($r = .862$), 자산과 주거형태간에($r = .712$), 그리고 계획의 속성요소인 복잡성과 과정요소인 행동의 중복성 사이에($r = .733$)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따라 결혼지속연수, 주거형태, 계획의 속성요소인 복잡성을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표 3〉에 나타나있고 이들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주부의 관리만족도는 투입요소중 가족수, 막내자

〈그림 2〉 관리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녀연령, 주부의 취업상태, 주부의 건강, 결혼만족도, 그리고 변환과정요소인 표준설정, 실현가능성, 촉진조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관리만족도의 총분산을 34.5%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투입요소와 관리만족도와의 관계

투입요소중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만족도($p = .298$), 주부의 건강($p = .149$), 가족수($p = -.132$), 막내자녀연령($p = .125$), 주부의 취업상태($p = .093$) 등이었다. 관리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결혼만족도였는데, 이는 애정위주의 핵가족제도하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정생활유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 준다고 하겠다. 결혼만족도 다음으로는 주부의 건강이 관리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건강을完비한 주부는 관리행동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만족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막내자녀연령이 높은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가 자랄수록 어린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가사노동부담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이 증가하는 데도 연유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성장한 자녀로부터 이해와 감사 등의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관리만족도를 높이는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낮은 것은 가정안과 밖에서 갖게되는 이중적인 노동부담에 시달리는 데 원인이 있겠고 관리만족을 소득만족으로 대체하려는 나머지 가정관리에 관심을 적게 갖는 취업주부의 자기합리화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변환과정요소와 관리만족도와의 관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모든 전체 변수들중에서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p = .370$). 특히 이 실현가능성은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즉 가족수($p = -.132$), 막내자녀연령($p =$

125), 표준설정($p = .124$), 촉진조건($p = .157$)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는 주부가 계획과 실제의 행동결과가 일치하도록 관리행동을 하는 것이 관리만족을 얻는데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주부가 관리에 불만족하는 것은 주부가 지닌 가족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실제와 다른 계획을 세우는 자신의 관리행동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또한 표준을 높게 설정하는 주부가 관리만족도가 높았으며 촉진조건을 많이 가진 주부가 관리만족도가 높았는데 표준설정이 높은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큰 것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는 주부가 표준설정을 낮게 설정하는 주부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내하며 관리행동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촉진조건이 좋을수록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큰 것은 즉, 신체적 양호, 동기, 지식, 기술, 경험, 쇼핑습관과 같은 개인적인 촉진조건, 가족구성원의 연령, 기호, 가사분담, 기술적 자원, 의무 등과 같은 가족상황에서의 촉진조건, 상점의 위치유형, 상점의 방침, 일의 특성, 시설 등의 물질적인 촉진조건 등이 양호한 주부가 관리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로의 변환과정요소

투입요소들은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표준설정, 실현가능성, 촉진조건 등의 변환과정요소를 매개로 하여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표 4〉참고).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주부의 관리만족도와 높은 총체적인 관계($r = .350$)를 가지며 이 중에서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340). 아울러 결혼만족도가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는 표준설정과 촉진조건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042로써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와의 약 12.3%라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표 4〉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N=500)

변 수	총체적 관계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수	-.154	-.152	-.132	촉진경유: -.020	-.002
막내자녀연령	.159	.146	.125	촉진경유: .021	.013
주부의 취업상태	-.137	-.111	-.093	표준설정 경유: -.015 실현가능성과 촉진경유: -.003 합: -.018	-.026
주부의 건강	.246	.225	.202	촉진경유: .023	.021
결혼만족도	.350	.340	.298	표준설정 경유: .015 촉진경유: .027 합: .042	.01
표준설정	.250	.142	.142	-	.108
실현가능성	.373	.372	.370	촉진경유: .02	.001
촉진	.274	.157	.157	-	.117

는 결국 결혼만족도가 높은 주부가 표준을 높게 설정하고 주부의 관리행동에 도움을 받는 촉진조건을 많이 보유하도록 노력해서 관리만족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부의 건강 또한 주부의 관리만족도와 높은 총체적인 관계($r = .246$)를 갖는데 이중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는 .225이며 이중에서 촉진조건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023으로써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의 약 10.4%를 차지한다. 따라서 건강한 주부일수록 유리한 촉진조건을 보유하게되어 관리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경로를 통해 볼 때 결혼만족도와 주부의 건강은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 4〉를 볼 때 가족수와 주부의 관리만족도와는 총체적인 부적관계($r = -.154$)를 가지며 이중 전체효과는 -.152이고 간접효과는 촉진조건을 매개로 한 -.02로써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의 13%를 차지한다. 이는 결국 가족수가 많은 다인수 가족이 주부의 촉진조건을 감소시켜 주부의 관리만족도를 낮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부의 취업상태 역시 관리만족도와 총체적인

부적 상관관계(-.137)를 가지는데 전체 효과는 -.111이며 이중 직접효과는 -.093이고 간접효과는 표준설정을 매개로 한 -.015와 실현가능성과 촉진을 경유한 -.003을 합하여 총 -.018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낮은 것은 표준설정을 낮게하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계획을 세우고 촉진조건을 적게 보유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막내자녀연령은 주부의 관리만족도와 .159의 총체적 관계를 가지며 총체적인 상관관계중 인과적으로 미치는 전체효과는 .146이고 이중에서 촉진조건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021로써 간접효과가 전체효과의 14.3%를 점유한다. 결국 막내자녀연령이 높은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큰 것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동안 자녀의 가사참여 등의 양호한 촉진조건을 얻게 되어 관리만족도를 증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신이 매개변수이면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하여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실현가능성과 주부의 관리만족도는 .373의 총체적 관계를 가지며 이중 전체효과는 .372이고 간접효과는 촉진조건을 매개로 한 .02로써

간접효과의 비율이 전체효과의 약 6%에 해당된다. 결국 실현가능성있는 계획을 세우는 주부가 촉진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관리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때 본 연구의 결과는 Deacon과 Firebaugh(1988)의 가정관리 체계의 기초이론이 한국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요소인 결혼만족도, 주부의 건강, 가족수, 주부의 취업상태, 막내자녀연령 등은 주부의 관리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변화과정요소인 표준설정, 실현가능성, 촉진조건을 매개하여 관리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변화과정은 산출을 매개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이론적 체계모형의 요소 및 요소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하여 가정관리 이론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주부가 결혼만족도가 높고, 건강하며, 가족수가 적고, 전업주부이며 막내자녀연령이 높을때 자신의 가사노동결과에 대해 더 만족한다. 위의 변수들은 주부의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변화과정요소를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부가 가사노동 수행시 이에 대한 표준을 높게 설정하고, 실현가능성있는 계획을 세우고, 촉진조건을 많이 보유할수록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계획과정인 표준설정, 계획의 속성요소인 실현가능성, 그리고 수행요소인 촉진조건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인 관리만족도를 연결해 주는 매개변수들이다. 이와 같이 투입요소가 변화과정을 매개변수로 하여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관리체계가 투입, 변화과정, 산출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후속연구와 가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가정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고 구체화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된다. 가정관리의 대상이 의, 식, 주생활, 양육, 가족관계 등으로 가정관리 자체가 광범위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에 적용하려면 측정도구의 양적인 증대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회에 걸쳐 측정도구를 몇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생활에서 수행하고있는 관리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통한 양적인 측정뿐만아니라 관찰이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한 질적인 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의 세탁, 주생활의 청소, 식생활의 식사준비, 가정경제생활의 장보기, 가계부정리 등의 가사작업으로 가정관리대상을 제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사작업, 나아가서는 가정관리 전체에 대한 도구작성을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서울시내 주부로 한정하였는데 해석의 일반화를 위하여는 대도시, 중도시, 농촌 등 전국 주부를 연구대상자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관리체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시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문헌에 의존하여 변수를 추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구를 작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다소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관리가 가정생활의 향상과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한 체계이론의 검증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 분야에서 검증의 첫시도를 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선행연구를 보완해 가는 발전적인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전체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두경자, 1990) 주부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관리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주부 자신이 가족 환경적 조건을 개선해서 가사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촉진조건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주부의 관리만족도는 증진될 것이다.

둘째,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며, 적절한 수준의 수행표준을 설정하고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면 주부의 관리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셋째, 주부의 취업이나 가족수와 같은 요구요소는 관리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가정내적인 측면과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강신주·서영숙·최보가,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6호, 1968, pp.134-141.
- 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1988.
- 3)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
- 4) 김미숙, 「산업사회에서 도시주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5) 김외숙,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Ⅰ),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 6) 김은주, 「도시주부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7) 서창원,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8)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제16권, 제2호, 1977, pp.19-26.
- 9) 윤복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제2호, pp.59-77.
- 10) 이기숙,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4호, 1982, pp.125-132.
- 11) 이미선, 이정우, 가정관리의 실습관 실습후의 관리행동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pp.1-13, 1985.
- 12) 이연숙,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1983.
- 13) 이연숙, 가정관리학습이 관리행동에 미친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성심여자대학, 1990, pp.3-6.
- 14) 이연숙,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1988.
- 15)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2호, 1984, pp.103-132.
- 16)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1989.
- 17)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
- 18) 조미환,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 19)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987.
- 20) Ater, C., & Deacon, R.E., Inter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ies and managerial compon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2, 51, pp.257-262.
- 21) Beard, D.M.,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Ph. 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70.
- 22) Beutler, I.F., & Owen, A.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September, Vol. 9, No 1, 1980.
- 23) Deacon, R.E., & Firebaugh, F.M.,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1st Ed.), Boston: Houghton-Mifflin, 1966)
- 24) Deacon, R.E. &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8.
- 25) Dickens, D., Effects of good household management in family living, Mississippi agricultural experiment

- station bulletin 380, 1943.
- 26) Gross, I.H., Crandall, E., & Knoll, 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ition,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80, p.11.
- 27) Gross, I.H., Measuring home management,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211, 1948.
- 28) Gross, I.H., & Zwemer, E.A., Management in michigan hom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1944.
- 29) Gronau, R.,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6, 1977.
- 30) Guadagno, M.A.N., A systems approach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Implications for family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ilwaukee, 1981.
- 31) Heck, R.K.Z., A preliminary test of a management research model,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U.S.A., 1983.
- 32) Hill, R., Judgement and consumership in the management of family resourc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7, 1963, pp.446-460.
- 33) Huguley, B.C., Managerial orientation and its effects on level of liv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6.
- 34) Maloch, F., & Deacon, R.E., Proposed framework for home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58, 1966, pp.31-35.
- 35) Maloch, F., & Deacon, R.E., Components of home management in relation to selected variables, Ohi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Wooster, Ohio, 1970, pp.15-16.
- 36) Newton, D.L.,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84.
- 37) Oakley, A.,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Pantheon books, 1974.
- 38) Olson, G.I. & Beard, D.M., Assessing management related daily activity, NC: 116 family resources management, April 26-27 1984, Minneapolis, Minn.
- 39) Paolucci, B., Olive, A., Hall & Axinn, N., Family decision making:An:ecosystem approach, New York:John Willey & Sons. 1977.
- 40) Sharpe, D.L., & Winter, M., Toward a definition of the effective manager:Thought process and behavior, Iowa State University, Nov. 4, 1982.
- 41) Sahlberg, K.M., A managerial systems approach to factors influencing family financial plan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7.
- 42) Sanik, M., A twofold comprison of time spent in household work in two parent, two child households: Urban New York state in 1967-1978:Urban-rural, New York-Oregon in 1977,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43) Van Bortel, D. G., Gross, I.H., A comparison of home management in two socioeconomic groups, Michigan agricultural exiperment station bulletin 240, 1951.
- 44) Walker, K.E., Home making still takes tim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1.
- 45) Wetters, DE, Creative aspects homemanager's resourceful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7.
- 46) Wiegand, E., Use of time by full-time and part-time homemakers in relation to home management,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emoir 330, 1953.